김성우(金成雨) 장군과 보령(保寧)

목 차

I. 김성우의 가계와 행적
II. 김성우의 토왜행적
III. 김성우의 보령전적에 관한 자료의 고찰
V. 김성우의 위상(位相)

I. 김성우의 가계와 행적

1. 김성우 가계

김성우의 가계는 대대로 문무겸전의 집안이었고 특히 증조 김주정은 두 차례나 왜구토벌에 참여하여 큰 공훈을 세웠다. 김주정의 장자이자 김성우의 종조 김심이 만호이자 도원수였고, 김심의 큰 사위 오첨(吳瞻)은 전라도진변만호로 판통례문사를 지냈다. 김성우의 6촌 김종연은 전라도 도원수로 왜구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처럼 고려 말 김주정의 후손들은 전라도를 비롯한 서해안에서 왜구토벌에 적극 참여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김성우가 도만호로 왜구토벌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증조 김주정을 비롯한 가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김성우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표1] 김성우 세계도

周鼎 ─ 流─ 允臧 ─ 成雨 ─南浩 ┬ 仲老 ┬ 孟權 ┬ 克愼
版圖判書 └公權 ├ 克成
├ 克讓
├ 興老 ├ 한산 李穉 ┬ 이지번
└ 한양 趙以璐 ├ 원주 元頤 ├ 이지무
└ 용인李永淳 └ 이지함
└ 南渝(황해도 장연거주)

2. 행적

1350년(충정왕 28)부터 왜구(倭寇)의 침구는 본격화되어 서해안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후 1380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왜구의 침구는 극에 달하였다. 이에 김성우는 전라도도만호(全羅道都萬戶) 겸 초토영전사(招討營田事)로 전라,서해안의 왜구토벌에 참여하였다. 김성우는 전라도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북상하여 1380-1381년 남포, 보령연안을 침구하여 약탈방화를 일삼던 왜구를 맞아 보령지방에서 활약하면서 의평리 등에서 크게 물리쳤다. 김성우는 그 선계가 전라도 지역의 왜구토벌에 종사한 것 같이 그도 평생을 왜구토벌에 바쳤다.

이후 김성우는 보령의 땅이 좋아 이곳에 정착하여 가계를 꾸렸다. 그리고 김성우는 초토영전사로서 황폐화된 보령지방의 땅을 영전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1390년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김성우의 6촌으로 함께 왜구토벌에 참여했던 전라도 도원수 김종연이 '윤이와 이초'의 옥사에 연루되어 조선 개창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옥사로 김종연의 최측근인 지용기, 정지, 변안열 등이 무장 해제되어 숙청되거나 유배를 떠났거나 죽임을 당했다.

그러던 중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하였고 조선 개창세력들은 신정부에의 참여를 빌미로 김성우를 수차례 불러들였다. 결국 김성우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로 그 청을 끝까지 거절하고 현지 자처함으로써 생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김성우가 왜구토벌에 성공하고 전적지인 보령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지를 삼은 것처럼 진포 등지에서 왜구를 토벌한 나세(羅世)(1320-1397)의 후손 또한 전적지 서천에 세거해오고 있는 것 또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표2] 나세와 김성우 행력 비교표

	본관	출생지	생졸년도	출정당시 관직	전투지	가족		세거지
나 세	나주	황해도 연안	1320 - 1397	상원수	진포구 (충남 서천)	장자	공주	서천군 마서면
						차자 (나궤)	서천	
						막내	황해연안	
김성우	광주	황해도 개경	1327 - 1392	전라우도 만호	충남 보령	장자 (남호)	보령	보령시 청라면
						차자 (남염)	황해장연	

3. 김성우의 관직명 검토

왜구토벌과 관련된 '도만호'라는 직책은 1352년(공민왕1)에 나타나고 '좌우도'의 명칭 또한 고려 말 공양왕 원년(1389)에 등장한다.[1] 따라서 김성우의 도만호란 직책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전라도 도만호 김성우가 보령에서 치른 전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의 '만호(萬戶)'와 '만호부(萬戶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호는 원나라에서 유래한 관직으로 최초의 고려인 만호는 박희실과 조문주이다. 이후

1) 『고려사』 지37, 선군, 공양왕 원년 10월. "박인우(朴麟祐)를 '양광좌우도 수군도만호'를 삼았다."

1280년 일본정벌을 앞두고 원나라는 충렬왕의 요청으로 고려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김성우의 증조인 김주정[2]과 박구에게 만호를 박지량 등 10인에게 천호를 조변 등 30명에게 총파를 제수하였다. 1281년 왜구의 침구에 대비하여 마산에 합포등처진변만호(합포만호부)가 설치되고, 1290년 전라도에는 전라도진변만호부(전라도만호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1293년 서경에 서경등처관수수군만호부(서경만호부)를 1301년 제주에 탐라만호부를 설치하였고 또한 순군만호부를 두어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3]

고려 말 전라도만호부는 전라도 및 보령연해를 포함한 충청수역까지의 서해안을 담당하였고, 개경을 비롯한 서해북부는 서경만호부의 관할이었다. 따라서 전라도 도만호 김성우가 전라도만호부를 떠나 상시로 충청의 수군진이 있는 진포의 장암진이나 보령의 고만수영으로 이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러면 고려 때 없던 전라우도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조선조에 전라도 서해안에 해당되는 곳으로 김성우가 활동한 고려 때의 지역이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조에 김성우를 기록화하면서 전라우도라 칭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김성우의 묘비에 등장하는 '고려 절충장군 전라우도 도만호' 또한 고려의 도만호란 직책이 조선의 품계나 직명에서 동가인 '수사' 또는 '수군절도사'에 해당되기에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4] 아울러 김성우의 직명에 추가된 '초토사', '초토영전사' 등의 새로운 칭호는 전라도에서 왜구를 소탕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보령지역이 왜구의 침구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파되어 이를 소탕하고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전(營田)한데서 비롯된 직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1389년(신우5) 정지(鄭地)(1347-1391)가 양광, 전라, 경상도 도절제체찰사 겸 총초토영전선성사(摠招討營田繕城事)로 임명되었고 1390년 왕강(王康)(?~1394)이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로서 양광 전라 경상도 수군도체찰사 겸 방어 영전염철사(楊廣全羅慶尙道水軍都體察使兼防禦營田鹽鐵事)가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5] 특히 보령지역이 해안가에 위치하여 왜구의 침구에 노출되고 염전업과 농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형학적 특성과 더욱이 보령에 많은 성이 축성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김성우에게는 초토, 영전, 염철, 선성의 일을 동시에 겸하는'초토영전염철선성사'라는 특별 관직명칭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김성우의 초토영전사라는 관직은 정지가 초토영전선성사를 왕방이 영전염철사를 겸직했다는 사실에서 부합하는 것이다.

II. 김성우의 토왜행적

1. 보령지방의 왜구 침구

2) 김성우의 증조부인 김주정이 왜구토벌의 대장군으로 만호였다는 사실은 김주정의 증손인 김성우로 이어지는 만호의 승계에 대한 유추 또한 가능하게 한다.

3) 최근성, 「고려 만호부에 관한 연구」, 『관동사학』3, 원진문화사, 1988. pp.58-61.

4) 『우정집』의 '소원록'에서도 김성우의 관직인 도만호가 조선의 '수사' 또는 '수군절도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극성, 『우정집』.

5) 『고려사』세가 제50, 신우5.
이것은 고려시대에 전란 중에 임시로 특별히 파견하는 초토사(招討事)를 비롯하여, 논밭을 일구는 영전사(營田事), 염전과 철을 다루는 염철사(鹽鐵事), 조운의 일을 다루는 조전사(漕轉事), 성을 축성하는 선성사(繕城事)의 특별 관직이 상황에 따라 제수되었음을 보여준다.

보령현이 왜구침구의 주요한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보령연안이 서해해로에 위치하고 내륙으로 접근하기 쉬운 포구가 발달되어 내륙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이것은 마산의 합포, 서천의 진포 등의 포구를 통하여 왜구가 침구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또한 보령연해는 고려시대 전라도에서 개경에 이르는 조운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역이었다는 점도 침구배경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보령연해는 마산 석두창을 출발한 조운선이 전라도 부안에서 군산을 거쳐 원산도에서 태안으로 통과하는 간선해로에 위치한다. 이처럼 충청서해안은 고려시대 조운선의 엄호 및 관리에 중요한 지역이었다.

아울러 보령연안이 해상교통의 요지라는 점이다. 이것은 고만도정의 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호남과 개경을 연결하는 노정에 객관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1077년(문종31년)에 태안에 안흥정이 설치되었고 그 이전에는 바로 오늘 날의 고정리 송도부근인 고만도(高巒島)에 객관이 설치 운영되었다.

2. 김성우의 보령입성

김성우의 보령입성의 배경은 고려 말 왜구침구로 1350년과 1380-1381년 충청 서해연안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으로 입증된다. 고려 말 충청서해안에는 진포의 장암진과 보령의 고만에 수군진이 설치되었고 이 수군진은 전라도만호부 휘하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전라도 도만호인 김성우가 왜구침구의 방어나 조운선의 보호 등의 군사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전라도를 떠나 충청수영이 있던 고만으로 북상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이 시기 조운선이 왜구의 습격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개경에 이르는 조운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만호 지휘부의 이동반경이 넓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6]

> 전라도도순어사 김횡(金鉉)이 조운선으로 내포(內浦)에까지 이르러 왜적과 싸워 패하였는데 절반 이상이 전사하였다.[7]

이처럼 김횡이 자신의 작전지역인 전라도를 벗어나 내포의 삽교천 일대인 태안반도와 그 주변지역까지 조운선을 엄호한 것은 조운선을 노리고 서해연안을 침구해 들어오던 왜구 때문이었다. 위의 예는 고려 말의 수군이 왜구토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조운선의 보호까지 담당하면서 그 활동범위도 부임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8] 이처럼 김성우가 부임지인 전라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기부터 갑자기 증가된 왜구침구에 또 다른 원인이 있어 보인다.

[표3] 1374-1389년 충남지역 왜구침구 횟수

---

6) 가령 공민왕대(1358) 전라도진변사 고용현(高用賢)은 왜구의 약탈로부터 세곡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해 지역 조창의 이전을 건의하였고, 이 의견에 의하여 정부는 연해 조창의 내륙이전을 추진하였다.『고려사』39, 공민왕세가 7년 4월 정유조.

7)『고려사』공민왕 13년(1364) 4월

8) 고려 말 왜구의 침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부임지를 이탈하는 예는 『고려사』 곳곳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해도원수 정지는 1382년 10월 왜적이 남원군을 침범하고 왜선이 진포에 들어오자 군산도까지 추적하여 배 4척을 노획했으며, 1383년에는 남해의 관음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1381년 5월 양광도도순문사 오언(吳彦)은 경상도의 이산수(伊山戍)에 침구한 왜구 8명을 참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년도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침구 횟수	0	1	3	8	10	1	4	4
년도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침구 횟수	3	1	0	0	0	1	1	1

그러므로 김성우가 “장수로서 군사를 이끌고 보령을 지나다”[9]라는 조선 전기 금석문의 기록과 “왜구의 소굴이었던 보령지역에서 왜구를 토벌했다”[10]라는 조선후기의 기록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김성우가 부임지인 전라도를 떠나 보령지역에서 왜구를 토벌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김성우의 보령입성은 앞서 살펴본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1350년 이후 서해 및 내포지역의 왜구침구가 증가되어 피해가 커지자, 김성우는 전라도 도만호로 1380-1381년 남포, 보령연안에 침구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 김성우는 고려 말의 절충장군이자 전라우도도만호 즉 지금(조선조)의 수군절도사 겸 초토영전사이다. 고려 말 왜구들이 호우를 침구했을 때 왕의 명을 받아 왜구를 토벌하였다.[11]

위 인용문의 “왜구가 호우에 침구했을 때(時倭蒲湖右)”에서 “호우”는 전라도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서천, 남포, 보령지역 등을 포함한다. 김성우의 고려군은 전라도에서 왜구를 토벌한 후 천수만을 끼고 서해안을 항해하던 중 보령지역이 왜구침구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12] 그러면 김성우가 언제 보령에 입성하여 왜구토벌에 참여했을까? 김성우의 보령입성 시기는 사료의 기록으로 볼 때 다음 세 시기로 보여진다. 하나는 1377-1379년 사이의 왜구침구 절정기이다. 이 시기의 구체적인 보령현 침구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충청도 연해의 침구(1377.5)를 비롯하여 19회의 충남지역 왜구침구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보령의 왜구침구 시기인 1380-1381년으로 보여진다. 이 시기는 사료에 기록된 보령현, 남포현의 왜구침구 기록을 뒷받침한다. 마지막 시기는 1388-1389년 사이로 이 시기는 보령을 비롯한 충남지역 왜구침구가 소원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왜구침구가 다시 기승을 부린 시기이다.

3. 김성우의 보령 전적지

1) 고만(高巒)

고만은 고만도(高巒島), 고란도(高鸞島), 고밀도(高密島) 등으로 불리던 현재의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 일대의 송도로 송나라 사신들이 왕래하던 정관(亭館)이 있었던 곳이자[13], 군대가 지키던 병수처가 있던 군사적 요충지이다.

보령현 북부 해안에 위치한 고만수영은 원산도로 가는 조운선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서해해

9) 김극성, ‘증조 묘갈명(1501)’, 『우정집』.
10) 정권, 앞의 책.
11) 김극성, 「소원록」,『우정집』, 한국문집총간.
12) 이것은 “장수로써 군사를 거느리고 보령을 지나다(師過保寧)”라는 1501년 금석문과 궤를 같이 한다.
13)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고전번역원

로를 지키는 수군진으로[14] 충청남부의 금강하구에서 북상하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책임진 전라도만호부의 활동영역이었다. 따라서 전라도 도만호인 김성우가 수시로 전라도에서 올라와 이 수영을 근거로 왜구침구를 방어하거나 조운선의 안내보호 등의 군사 활동을 했다고 보여진다. 김성우는 이러한 활동의 공으로 고만 일대를 사전(賜田)으로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15] 이것은 고만이 후일 김성우의 증손 김맹권의 사위 이치(李穉)에게 분재되며, 한산이씨 문헌록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16]

2) 군입리(軍入里)

군입리가 김성우의 전적지라는 사실은『신안현지』,『여지도서(輿地圖書)』등에서 확인된다.

군입리는 현에서 남쪽으로 삼십 오리에 위치한다. 김성우 장군이 왜구를 토벌하라는 왕명을 받고 해안으로 왜구를 유인하던 곳으로 이때부터 이곳의 이름을 군입리라 불렀다.[17]

또한 군입리 인근의 상주막(常駐幕), 해망산(海望山), 군헌(軍軒)(군마루), 관암(冠巖)등이 김성우의 전적지로 전해지며, 특히 관암의 풍경이 충청수영 내의 영보정보다 더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관암은 현의 남쪽으로 사십 리에 위치한다. 고려 말 김성우 장군이 왜구를 섬멸할 당시 쓰고 있던 모자(갓)를 벗어 올려놓았다는 데서 관암이란 명칭이 유래한다. 기암괴석이 우뚝 솟아있는 이곳은 해변 10리가 모래사장이고 만리 해역이 펼쳐진 멋진 풍경은 오천 충청수영이 있는 영보정과 비할 바가 아니다.[18]

특히 많은 시인묵객들이 김성우의 관암을 주제로 한 시를 남기고 있는데 채팽윤(蔡彭胤)(1669-1731)과 하백원(河百源)(1781-1844)이 대표적이다.

3) 의평리(蟻坪里)

의평리 전첩은 '군입리' 전투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사료 및 구전지명을 통하여 고증이 가능하다.

---

14) 고만수영이 고려 말 보령 서해안으로 침구하려는 왜구를 방어하는 중요한 병수처의 역할을 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조선 초기에도 보령현에 왜구가 침구했다는 기록(1393년)과 고만도에 고만량 만호가 상주했다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1406년 충청도 연해 여러 곳에 왜구가 침구하여 민가를 약탈한 것을 비롯하여, 1419년 5월에는 50여 척의 선단으로 비인현을 침입하여 병선 7척을 탈취해 불 지르고 연해 민간인 300여 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장학근, 「해양방위 정책과 충청수영」, 『충청수영의 역사와 문화』(보령문화연구회, 2009. 6)와『세종실록지리지』(세종1년 5월 신해)를 참조요망. 『本營事例』의 「本營事蹟」
15) 유형원, 앞의 책.
16) 김학수,「고문서를 통해본 한산이씨 아계-후곡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아계 이산해의 학문과 사상』, 아계 서거 400주년 추모 기념학술발표대회, 한국역사문화연구원, 2009.
17) 『신안현지』, p.13.
18) 『신안현지』, p.12.이러한 내용은 『여지도서』(p.385) 『충청도읍지』(p.573)『조선환여승람』, p.35에서도 확인된다.

① 복병리(伏兵里) 및 의평리(蟻坪里)

김성우의 전적지인 '복병리', '의평리'는『신안현지』를 비롯하여『여지도서』,『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호서읍지』,『1872년 지방도』,『충청남도지』등의 산천조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의평천은 현에서 동으로 이십 리에 있으며 복병천은 동으로 십 칠 리에 있다. 고려 김성우가 군사를 매복하여 왜구를 크게 물리친 이후 지명이 '복병리'가 됐으며, 그 당시 왜구의 시체가 개미떼와 같다하여 '의평리'라 부른다.[19]

복병리는 '복병이', '복뱅이'로도 불리며 군입리에서 대천천을 따라 약 12km 북쪽의 봉황산(157m)과 인접한 서산 아래에 위치한다. 이곳은 왜구들이 독정이의 협곡인 애지를 통과하여 현재의 저수지 방죽 깊숙이 들어오더라도 밖에서 전혀 감지할 수 없어 군사를 매복하기에 용이하다. 김성우는 이러한 복병리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왜구들이 방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인로로부터 떨어진 지점을 매복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불무골, 병하지벌, 둔대(둔터)등이 전해진다.

② 시루성[20]

김성우의 의평리 전첩을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자료는 시루성이다. 시루성은 대천에서 청라로 가는 옛 보안원소로이자 현재 국도 36호가 통과하는 청천 저수지 남쪽 향천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야산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 (....) 고려시대 말엽에 김성우 장군이 이곳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복병리에 복병(伏兵)을 배치시켰다가 바닷쪽에서 침입하는 왜적(倭敵)을 갯벌에서 섬멸시켰다고 한다. 성 아래의 마을은 시루성이와 창터가 있는데 창터에는 창고가 있었다고도 한다. 성의 안팎에서는 백제계(百濟系)의 토기파편(土器破片)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미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축조되었던 듯하고, 폐성화(廢城化) 되었다가 고려때 왜구(倭寇)를 막으려고 수축(修築)하여 이용했던 듯하다.[21]

이 성의 명칭은 보령현 지리지나 관찬지지에 기록되어있지 않으나『1872년 지방도-보령부지도』에 처음으로 청라면의 설명에서 다른 지명과 함께 시루성의 한자식 표기인'증성(甑城)'으로 주기되어있다. 이 시루성은 잘 다듬어진 가공석이 아닌 자연석에 가까운 석재로 쌓은 성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기술을 동원해 만든 진산성(鎭山城)이 아니고 수시로 침입하는 왜구에 대비하여 군사목적으로 쌓은 성이다.

---

19)『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46권, 보령현조, p.573, 호서읍지』, p.731, p.293, 및 윤용혁, 「왜구의 침략과 충남」,『충청남도지』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6.

20) 국방문화재연구원(원장 이재)에서는 <제1회 김성우 장군 추모기념 학술대회>에 맞춰 시루성에 대한 지표 발굴조사를 한 바 있다. 이재, 보령 「향천리 시루성의 성격」, 『고려절신 김성우 장군 재조명』, 제1회 김성우 장군 추모기념 학술대회,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9.

21) 『한국의 지명』4, 한글학회, 1974, p.429.

III. 김성우의 보령전적에 관한 자료의 고찰

1. 문헌 사료(史料)

1) 지리지 고찰

(1)『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동국여지지』(1656-1673)는 유형원이 편찬한 전국 지리지로 9권 10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이 지리지 '인물조' 첫머리에 김성우가 왜구토벌의 공로가 있어 사패지(賜田)를 받아 보령 땅에 들어와 그 후손들이 가계를 꾸린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맹권은 광주인이다. 증조는 도만호 김성우 장군으로 고려 말 왜구토벌의 공으로 사패지를 받아 보령에 자손이 세거하게 되었다.[22](...)

이 지리지의 편찬 동기는 우리나라 지리지의 부족함과『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이 해당지역을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기술하기 보다는 시문 위주로 기술되어있다는 불만이었다. 이 책의 중요성은 17세기의 실학사상에 의거하여 역사 지리적 측면을 강조했고, 지역의 실상에 접근하는 지지를 편찬하려 했다.

유형원은 당시 조선에서 일고 있던 지역문제와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 시도했고, 나아가 읍지가 지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전국단위로 격상시켜 국가차원에서 지역과 사회현상을 올바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동국여지지』에 서술된 김성우의 행적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증보신안지(增補新安誌)』[23]

『증보신안지』는 보령현감을 지낸 정권(鄭權)(1692-1757)이 우부승지로 승진하여 한양으로 올라가 편찬한 현존하는 최고의 보령현 지리지로 1413년에 창간된 것으로 보인다.[24] 정권은 이 지리지에서 약 250여 명의 보령현의 인물을 시대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성우는 보령지역에서 왜구를 토벌한 보령현 최초의 역사인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있다.

고려 말 전라우도 도만호 초토사로서 왜구를 치라는 명을 받아 왜구 토벌 차 이곳 보령을 지날 때 이곳이 왜구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또 그의 군사가 들어온 곳을 군입포라 이름 하였고, 그가 병사를 매복시켰던 곳은 복병이라 하며, 소탕한 왜구의 시체가 개미처럼 운집한 곳은 의평리라 한다고 전해온다. (...) 그리하여 사람들이 김성우의 후손 광산김씨들을 보령 땅의 주인이라고 한다.[25]

---

22) 유형원, 『동국여지지』
23) 『신안현지』는 1850년 이후 필사본인 『보령군지』와 1900년대 초의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신안읍지(新安邑誌)』가 현존한다. 그 내용엔 인물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24)『충남의 서원, 사우』, 충청남도, 1999, 대문사, p.196.
"(....) 예컨대 태종 이래 창간되고 선조조에 중간된 보령현지인『신안현지』와 ....."
25) 정권, 『신안현지』

『증보신안지』의 자료수집 및 편집 책임위원은 이융(李瀜), 교정책임위원은 이형운(李亨運), 이광운(李匡運) 형제이다. 이들은 이치의 보령 입향 이래로 18세기를 대표하던 보령현의 사족이다. 따라서 『증보신안지』의 내용 및 사료적 가치는 확실하다고 본다. 왜냐하면『신안현지』를 부정한다면 이 지리지를 편찬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당시 보령현의 재지사족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며, 이것은 나아가 보령현의 정체성의 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 『여지도서(輿地圖書)』[26]

『여지도서』는『신증동국여지승람』이후 최고의 지리지로 평가된다. 김성우는 앞의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보령현 '인물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본관은 광주이다. 시중(侍中) 김주정의 증손이며, 판도판서(版圖判書) 김윤장의 아들이다. 고려 말에 도만호초토사로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왜적을 공격했다. 군대가 보령을 지나갈 때, 보령은 오래도록 왜구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김성우 공이 그들을 모두 무찔러 없앴다. 전투를 벌일 때 신령스러운 말이 저절로 왔기 때문에 그 봉우리의 이름을 옥마봉이라고 했으며, 칼이 저절로 나왔기 때문에 그 골짜기의 이름을 비도동이라고 했다. 군대가 바닷가 포구로 들어오니 군입포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으며, 병사들이 화애에 숨어있어서 복병평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포구의 바위에 갓을 벗어 놓은 까닭에 관암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다. 김성우 공이 청라 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손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여긴다.[27]

이 지리지는 이전의 지리지와는 달리 역사적 의의가 중시되는 역사 인물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김성우의 행적을 비롯한 보령전적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는 것은 조선 후기사회에서 김성우의 보령전적이 공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4) 『1872년 지방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후기 사회는 서세동점기로 또 다시 커다란 혼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국방과 치안을 위한 지방의 실정 파악은 시급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1871년에는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을 이듬해인 1872년에는 전국 단위의 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1872년 지방도』인 보령부지도(保寧府 地圖)이다. 이 지도의 특징은 '복병리, 군입포, 관암, 의평, 고만산, 왕대산' 등과 같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명의 유래를 옆에 주기한 것이다.

의평은 청라면에 소재하며 현에서 25리의 거리에 있다. 의평이란 지명은 고려 때 김성우 장군이 왜구를 격퇴할 때 적의 시체가 개미떼처럼 쌓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26)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757년(영조 33) 홍양한(洪良漢)이 영조에게 건의하여 영조의 명에 의해 1765년 홍문관에서 각 지역의 읍지를 바탕으로 책임 편집한 관찬지리이다.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成冊)한 전국 단위의 읍지로 55책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의 중요성은 간행된 지 270여 년이 지난 정확성이 떨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다시 고쳐 쓴 관찬 지리지라는 점이다.

27) 『여지도서』 12, 「충청도」V(김우철 역), 전주대출판부, 2009, p.133

복병리는 현에서 17리의 거리에 있다. 고려 때 김성우 장군이 군대를 이곳에 매복하여 왜구를 대파했다. 이런 연유로 이 동리의 이름이 복병리로 불린다.[28]

이 지도의 제작 동기가 다름 아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교훈에서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물임을 고려할 때 김성우의 보령전적을 국가에서 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지리지에서의 김성우 행적 서술의 특징

김성우의 보령전적은 1600년 이후 즉 유형원의 『동국여지지』1656-1673)부터 기록되기 시작한다. 왜 시기적으로 1600년 이후부터 김성우의 행적이 지리지에 공식화되는 것일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김성우 사후 약 260 여년이 흘렀기 때문에 김성우의 행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1600년 이후의 모든 지리지에서부터 김성우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임진왜란(1592년)의 영향이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던 김성우의 보령전적이 자연스럽게 지역을 중심으로 공론화되었고 이때부터 지리지를 중심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김성우의 행적이 『고려사』를 정리한 사서나 문헌에 기록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또 조선전기의 금석문이나 가계기록에서 왜구토벌 행적의 내용이 간략하다하여 이를 불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성우가 처했던 당대의 정치적 상황은 그의 가문이 반혁명적 가문의 성향으로 인해 역사서술에서 배제되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김성우의 관직명과 행적이 조선후기 각종 지방지에 실리면서 김성우가 보령의 인물로 등재되고 행적도 사실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성우의 행적 가운데 그가 왜구와 싸운 전적지명이 기록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상황은 조선전기의 인물기술이 관직과 정치활동에 중심이 되어 기술되던 경향이 향리에서의 활동과 생활모습이 담겨진 설화 등 지방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사실화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3) 문집

(1) 김극성의 『우정집』

김극성의 『우정집』의 '행장'에는 회재 이언적(李彦迪)(1491-1553)[29]이 지은 김성우의 전적이 실려있다.

공의 이름은 극성이요 자는 성지이며 광주인이다. 몇 세대를 지나 고려시중을 지난 김주정을 거쳐 문임랑 감찰어사를 지낸 김류가 봉익대부 김윤장을 낳았다. 봉익대부 판도판서공 김윤장이 절충장군 전라우도 도만호 김성우를 낳았으니 공의 고조이시다. 김성우는 왜구를 토벌하라는 왕명을 받고 장수로써 보령을 지나다가 이곳 보령이 좋아 가정을 이루었고, 이곳 보령현의 사람이 되었다.(...)[30]

---

28) 「보령부지도」, 『1872 지방도』, 서울대 규장각.

29)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자계옹(紫溪翁)으로 좌찬성 겸 원상(院相)까지 지냈다.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쫓겨나 경주 자옥산(紫玉山)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후에 다시 등용되어으나 윤원형 일당의 모함으로 강계(江界)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에 《회재집》이 있다.

30) 김극성, 『우정집』, 한국문집총간 18집, p.434.

이언적은 김극성 <행장>에서도 김성우의 보령지역에서의 왜구토벌을 고증하고 있다.

증조 휘 남호는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인데, 전에 도만호공께서 자제들에게 타이르기를, "내 평생 기록할만한 덕이 없구나. 여러 차례 왜구를 무찔렀으니, 저들이 비록 추한 무리라 하나 살육을 너무 많이 하였구나. 살육은 도가(道家)에서는 꺼리는 것이니 너희들은 오직 덕을 수행하여 출세할 뜻을 깨끗이 없애면 대대로 덕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 하였다.[31]

"장군이 왜구를 너무 많이 살육했기 때문에 후손들은 비록 왜적이라고는 하나 도가에서 꺼리는 일이니 덕을 베풀며 살 것을 아들 김남호에게 부탁했다"는 위의 기술은 김성우의 보령전적의 고증에서 절대적 가치가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왜구의 시체가 개미떼와 같았다"라는 '의평리(蟻坪里)'의 전승지명을 고증한다. 왜냐하면 이언적이 김극성의 행장을 지으면서 김성우의 왜구토벌을 윤색하거나 과장하여 지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성우 장군의 자제에 대한 언급에서 보여준 그의 정치관은 다분히 자신이 겪은 현실 정치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그가 고려 왕조 말, 권력을 장악한 신흥 유신들의 '혁명'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보령에 터를 잡았던 그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행장의 자료는 전후 문맥 등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성우 장군 당대의 자료는 아니지만, 극히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점에서 김성우 장군이 고려 말의 혼란기에 여러 차례 왜구 격퇴에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 또 이같은 맥락은 김성우 장군에 의한 보령에서의 왜구 격퇴에 대한 후대의 기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32]

이 행장의 또 다른 의의는 김성우가 고려 말의 왜구토벌의 공을 세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서술에서 빠져있는 이유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너희들은 오직 덕을 수행하여 출세할 뜻(救世之念)을 깨끗이 없애라"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이것은 김성우가 조선 개창세력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신왕조의 부름을 거부한 채 자처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의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우 장군이 만년에 정치와 인연을 끊고 보령에 터를 잡은 것은 조선왕조 개창세력과 대척적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친족 김종연이 이성계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김성우 장군에 대한 기록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그의 처지는 김성우 장군이 자제들에게 남긴 가르침, "너희들은 오직 덕을 닦고, 출세할 뜻(救世之念)을 깨끗이 없이하라"는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성계의 신왕조는 김성우 장군을 배척하였고, 김성우 장군도 신왕조와는 마음의 담을 높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33]

2. 금석문

1) 김남호 묘비

31) 이언적, <김극성 행장>, 김극성, 『우정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32) 윤용혁, 앞의 논문, p.126.
33) 윤용혁, 앞의 논문, pp.126-127.

김성우의 보령전적 고증에서 가장 중요한 금석문은 김극성이 지은 김성우의 장남 김남호 묘비명이다. 1499년 사헌부 감찰로 재직하던 김극성은 모친상을 당해 보령으로 내려왔고, 1501년 아버지 김맹권의 명으로 증조 김남호의 비문을 지었다.

(...) 시중으로부터 약간의 세계를 지나 문림랑감찰어사인 휘 류가 있다. 어사는 봉익대부 판도판서 휘 윤장을 낳았고 판서는 절충장군 전라도우도 도만호 휘 성우를 낳았으니 왕명으로 해구를 토벌하러 장수로써 군사를 거느리고 보령을 지날 때 폐허가 된 좋은 터전을 발견하여 가계를 꾸린 연유다.(...)

무엇보다도 이 묘비에는 연표, 김성우의 가계, 개경에서 보령으로 이주한 연유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성우 이하 4대의 이름과 관직명을 비롯하여 산소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술되어있다. 또한 이 묘비에는 김성우의 보령전적이 처음으로 기록되며, 이 기록은 조선전기의 금석문으로 사료의 가치를 갖는다.

아울러 이 묘비에는 김성우가 개경을 떠나 보령에 온 이유는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의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과보령(師過保寧)", 즉, 김성우가 장수로써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보령에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김성우의 왜구 토벌 행적이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되어있는가?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김성우가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킨 점과 김성우 사후 4대가 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기라는 점 그리고 조선전기 금석문이 대체로 간략하게 서술되는 특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극성이 살았던 시기가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런 시기였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우정 김극성이 관료로 살았던 시기(1474-1540)는 무오사화 · 갑자사화 · 기묘사화 등 3대사화가 있었고, 또 을사사화를 목전에 두고 있던 암울한 사화기(士禍期)였다.[34] 또한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 북로남왜(北虜南倭)가 호시탐탐 국경을 유린하고 침략을 일삼아 국가적 사회적 불안이 점증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그치지 않았던 정치, 사회적 혼돈기였다.[35]

김남호 묘비는 보령시 최고의 개인금석문으로 보령광산김씨가 보령현, 남포현에서 가장 뿌리 깊은 사족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김남호의 묘비는 조선전기의 묘비로서의 사료적 가치를 갖는 금석문일 뿐만 아니라,[36] 김성우의 토왜행적을 최초로 명문화한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2) 김성우 묘비

충남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발산 일명 고려향에 위치한 김성우의 묘비에서도 김성우의 토왜행적을 살필 수 있다.

고려 말에 전라우도 도만호를 역임하였으니 지금의 수군절도사이다. 일찍이 왕명을 받들어 왜구를

---

34) 조선의 4대사화는 연산군-명종대에 일어난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그리고 을사사화(1545)를 총칭하는 말이다.
35) 한기범, 앞의 논문.
36) 이해준, 「사라진 역사의 미스터리 - 장군 김성우」, MBC 프라임(2910.9.16일 방송).

(...) 조선시대 그것도 조선 전기대의 비석들은 객관성과 사료적 가치가 있다 봅니다. 그분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마저 부정하기 시작하면 역사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벌하고 보령을 지나다가 보령 땅을 좋아하여 가계를 꾸리니 보령현의 사람이 되었다.[37]

이 묘비는 1607년(선조40년)에 김성우의 7대손 김경지(金景祉)(1545-?)가 글을 짓고 김섭(金涉)이 글을 써 세운 묘비이다. 위 묘비명에서 알 수 있듯이, 김성우의 왜구토벌에 관한 기록은 앞의 김남호 묘비명과 아주 흡사하다. 이것은 비문을 지은 7대손 김경지가 임의로 지은 글이 아닌 할아버지 김극성이 지은 김남호의 묘비명(1501)을 전거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우의 묘비명이 1501년 김극성이 지은 김남호 묘비를 전거로 하였음을 볼 때, 김극성이 김성우의 보령전적이나 행적을 윤색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김남호의 묘비는 조선전기의 묘비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묘비에는 조선전기 묘비 서술의 특징인 인물행적의 약술이라는 점이 작용하였다.

3) 김극성 <신도비>

김극성의 신도비는 월사 이정구(李廷龜)가 1613년에 지은 글을 보령현감 최응천(崔應天)(1615-1673)의 글씨로 김극성의 산소 아래에 세운 비다. 이정구 또한 김성우가 고려 말의 장군으로 왜구를 토벌하라는 왕명을 받고 고향을 떠났으며, 김성우의 보령입성 배경이 왜구토벌이란 왕명수행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분명하면서도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 고려 왕조에서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던 김주정이 바로 그 비조이고, 감찰어사를 지낸 김류를 거쳐 판도판서를 지낸 김윤장이 전라도 도만호를 지낸 김성우 장군을 낳으니 이 분이 바로 충정공의 고조이다. 일찍이 왜구를 치라는 명을 받들어 보령을 지나다 그 땅을 좋아하게 되어 자리를 잡고 마침내 보령 사람이 되었다(...)

김극성의 신도비가 김극성 사후 122년 후에 세워졌을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조선중기 4대 문장가중의 한 사람인 월사 이정구가 비문을 지었다는 점이다. 비문의 기술에 있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사적 의견을 기술한다는 것은 당시 조선 유교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정구의 김성우의 토왜행적 기술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4) 김해수(金海壽) 묘갈

다음은 1666년 건립된 김해수(1581-1640) 묘갈명의 일부로 김성우의 왜구토벌과 '장군동'이라는 지명의 유래 및 청라에 세거하게 된 배경 등을 기록하고 있다.

(...) 문원공 선생과 본이 같으며, 공의 중시조가 된다. 도만호 김성우는 보령의 토속을 좋아하여 청라동에 거처를 정했고, 왜구를 토벌한 공로가 있으며, 그 동을 장군동이라 부른다. 장군이 청라에 거처하게 되어 청라김씨가 되어 그 이후 청라 김씨라 부른다.(...).[38]

글은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동춘당 송준길(宋浚吉)이 글씨를 쓰고 전자는 서석 김만기(金萬基)가 썼다. 김해수의 묘갈명이 갖는 중요성은 조선사회를 통틀어 최고의 문인이자 정치가로 알려진 송시열을 비롯하여 송준길, 김만기가 김성우의 보령지역에서의 토왜행적을 공

37) 앞의 책, p.30.
38) 송시열, 『宋子大全』, 175권.

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은 동국 18현으로 문묘에 배향된 인물이다. 동춘당 송준길은 우암 송시열과 더불어 노론의 거두로 성리학 및 예학에 능했던 문신이자 대학자였다. 서석 김만기는 대제학을 지냈을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던 인물이다. 따라서 유학의 종장이자 대학자로 칭송되던 세 사람이 김해수 묘갈에서 기술한 김성우의 보령입성 배경과 보령전적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공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김성우의 위상(位相)

1. 김성우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김성우의 행적이 관찬사서에 서술되지 않은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려말선초에 이르는 정치상황 특히 조선 개창세력과 김성우의 주변인물과의 상호 역학관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조선개창 세력에 의해 김성우의 6촌 김종연[39]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윤이(尹彛)와 이초(李初)의 옥사'[40]가 주목된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김성우 가계의 특이점은 증조인 김주정이 도만호를 제수 받았고 김주정의 아들 김심이 도만호를 세습하였다.

[표4] 여말선초의 김성우 가계도

김주정 ┬ 김 심	━ 김승사	━ 김종연	
세자이사	판전리사사	밀직부사	전라도원수
1228-1290	1262-1338	? -?	?- 1390
└ 김 류	━ 김윤장	━ 김성우	
감찰어사	판도판서	전라도만호	
1270-?	1302-?	1327-1392	

또한 이들 가계의 특징은 김주정 이래 왜구토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김종연과 김성우가 전라도 지역에서 왜구토벌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고려 말 전라도 및 서해안에서 왜구토벌에 함께 참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보여진다. 김종연이 전라도 도원수였고 김성우가 전라우도 도만호였다는 직명으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조선개창세력과의 갈등으로 윤이와 이초의 사건은 조선 개창세력들에게 김종연을 비롯한 조선개창에 반대되는 세력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390-1392년 사이에 김종연, 지용기, 정지가 윤이와 이초의 옥사에 연루되었다가

39) 김종연의 출생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1390년 이성계 일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김종연은 증조인 김주정과 마찬가지로 제1차 쓰시마정벌을 단행한 무신으로 왜구토벌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1388년 7월 전라도부원수로서 광주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으며, 전라도도절제사와 전라도원수 등을 역임하면서 왜구와의 싸움을 지휘하여 구례 등지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1389년(창왕1) 원수가 되어 최칠석, 박자안 등과 쓰시마섬 정벌에 참여하여 큰 전과를 올리고 고려인 남녀 10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다가 1390년 윤이)와 이초의 옥사에 연루되어 1390년에 죽임을 당했다.

40) 윤이·이초의 옥사는 1390년 고려 무신 윤이와 이초가 공양왕과 이성계가 공모하여 명나라를 치려하며, 반대한 이색 , 김종연 등 고려 재상 및 무신들을 감금하거나 유배했다고 명나라에 보고함으로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를 빌미로 이들은 모두 친이성계파에 의해 결국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되었다.

이성계의 조선개창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이들 모두가 조선개창 이전에 이성계 일파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 무장들은 조선 개창세력의 중요한 숙청대상이었기 때문이다.

> 한편 온건파 신진사대부들 외에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숙청당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무장들이었다. 이성계 제거를 모의했다고 한 '김종연(金宗衍)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공양왕 옹립에 참여하여 9공신의 반열에 들었던 지용기, 박위를 포함한 정희계 등 많은 무장들이 명백하지 않은 이유로 숙청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군수통수권을 이성계 일파는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었다.[41]

이처럼 김성우가 자처한 배경에는 조선 개창세력에 의한 6촌 김종연의 죽임과 계속된 김성우 측근의 숙청에 있었던 것이다.

2.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고려충신

김성우의 보령전적은 보령지역의 확실한 토왜행적이다. 그러면 김성우는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김성우의 위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불사이군의 고려에 대한 충절이다. 이같은 김성우의 불사이군의 충절에 관한 기록은 『사가집』[42] ,『조선환여승람』에서도 확인된다.

> (...)고려 말에 전라우도 도만호 겸 초토영전사로 호서지역을 침범하던 왜구를 토벌하라는 왕명을 받들었다. 태조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킨 후 김성우의 위용을 전해 듣고 여러 차례 불렀다. 이에 김성우는 말에 올라타 칼을 차고 스무티 고개에 이르러 말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이냐?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구나!"하였더니 말도 눈물을 흘리며 땅을 발로 후비적거렸다. 공은 마침내 칼을 뽑아 말을 베고 공도 자결하였다.(...)[43]

이병연은 김성우를 '충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후대의 기록인 『사가집』이나『조선환여승람』에서의 김성우에 관한 불사이군의 충절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성우의 6촌 김종연과 더불어 려말선초의 정치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윤이와 이초의 옥사'는 김성우의 행적을 푸는 중요한 열쇠임이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이성계의 측근의 많은 무장들이 조선개창 세력의 음모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거나 유배되었기 때문이다.[44] 이처럼 김성우의 자처는 김종연의 죽임 및 이색 부자의 숙청과 더불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개창 세력은 김종연을 빌미로 김성우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김성우로서는 자처의 수단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가집』이나 『조선환여승람』의 김성우의 충절에 관한 기록은 비록 근대의 기록일지라도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한 것이다.

3. 김성우는 보령의 수호신이다.

---

41) 이형우, 앞의 책, pp.346-347.
42) 유호근, 『사가집』 제4권 및『보령향교지』, p. 425. 참조요망.
43) 이병연, 『조선환여승람』(1929), p.77.
44) 특히 이성계 최측근이었던 지용기, 정지, 변안열 등이 조선 개창세력에 의해 제거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처럼 조선건국은 수많은 반대파, 특히 군사력을 갖고 있던 무장들의 계속적인 숙청을 통해 이뤄졌다. 이형우, 앞의 논문, p.348.

김성우는 전라도 도만호 장군으로 고려 말 왜구의 침구로부터 보령의 땅과 백성을 지켜내 만세보령의 터전을 마련한 자랑스러운 보령의 역사인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에 근거한다.

무엇보다도 김성우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생존하여 활동했던 개경출신의 고려 말 장군이라는 점이다. 보령연해는 고려 시대 조운선이 통과하는 해로이자 송나라 사신이 왕래하던 역관과 병수처가 있었던 곳으로 왜구들의 침구지역이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보령연해의 전략적 중요성은 사서 및 지리지에 서술된 고려 말 보령지역의 왜구 침구를 입증하였다. 또한 각종 문헌사료(史料) 및 금석문 등의 고찰을 통하여 현재 보령지역에 현존하는 많은 전적지명이 김성우의 왜구토벌에서 유래하며, 이것은 김성우의 보령전적이 역사적 사실임을 고증하는 전승지명임이 밝혀졌다.

김성우 장군의 고려 말 보령에서의 왜구 토멸 행적은 분명해 보인다. 예컨대 1501년(연산군 7)에 건립된 護軍公(金南浩) 墓碣에서 '全羅右道 都萬戶 以王命討海寇 帥過保寧 見樂土爲墟 因家焉'이라 하여 왕명으로 왜구토벌을 책임 맡은 장수로 보령을 지나게 되고 낙토가 폐허가 됨에 정착하였다는 내용이라든가, 1540-1550년 金克成 行狀(李彦迪 찬)에서'내 평생 덕이 없어 누차 왜구를 무찌르면서 저들이 비록 패류들이기는 하나 살육을 지나치게 하였는지라 道家에서는 꺼리는 바이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李彦迪의 이 글을 통해 보면 김성우 장군의 왜구 토벌 사실은 사실로 보인다.[45]

그리고 김성우가 자처한 원인은 여말선초의 정치상황, 특히 윤이와 이초 옥사에 연루된 6촌 김종연의 개창세력에 의한 죽임을 비롯하여 김성우 주변 인물들의 개창세력에 의한 숙청과 이성계의 조선개창에서 기인하였다. 이것은 전 왕조 고려와 새로 개창한 조선의 양자택일에서 김성우로 하여금 불사이군이란 충절을 선택하게 한 동인이었다.

또한 김성우의 보령전적이 관찬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김성우가 불사이군의 절의를 선택한 자처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김성우의 보령전적이 조선개창세력이 편찬한 사서의 서술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사서가 완벽한 고려의 역사가 아니며, 더욱이 김성우의 조선 개창세력과의 정치적 관계로 볼 때 이와 같은 김성우 행적의 의도적인 배제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령과 아무런 연고가 없던 김성우가 보령에 입향하게 된 배경은 처변이나 외변이 아닌 고려 말 왜구토벌(의 공으로 받은 사패지)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성우의 보령 입향 배경은 왜구토벌이며, 왜구토벌의 공으로 받은 사패지라는 지리지의 서술(유형원, 『동국여지지』, 김맹권조)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45) 이해준, 「보령광산김씨 사적과 그 문화사적 성격」, 『고려절신 김성우 장군 재조명』, 제1회 김성우 장군 추모기념 학술대회, 충남대 인문학연구원, 2010, pp.212-213.